

대구 기름값 전국 최저

내년 세계 경기 둔화
원유 공급 증가로
기름값 8주째 하락
휘발유 0.1362원

대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이 연일 전국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값은 전주보다 25.3원 내린 0.14265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11월 다섯째 주(1425.1원)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경유도 0.13204원으로 전주보다 20.7원 내렸다.
대구의 기름값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서울이 0.15181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대구는 136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대구의 휘발유값은 10월 다섯째 주(1667원) 이후 8주째 내림세다.
대구에서 휘발유가 가장 저렴한 곳은 남구 미니주유소로 0.12777원에 판매하고 있다. 경유도 남구 미니주유소가 0.11777원으로 가장 낮았다.
액화석유가스(LPG)가 가장 저렴한 곳은 달성군 가창엘피지충전소로 0.849원이다.
국내 기름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오피넷 관계자는 "내년 세계 경기 둔화 전망과 원유 공급 증가로 당분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여은 기자

이낙연 총리 "도움을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구세군자선냄비를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예술대 갑질 횡포...교수 극단적 선택

검찰수사 의뢰 배후 용서 안돼
억울함 호소 스스로 목숨 끊어



지난 22일 오후 8시에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의 대구예술대학교 건물 3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교수가 안치된 대구시 중구 동산동 동산의료원 정제실상.

학교 측과 학생, 교수협의회가 공동으로 대립하는 등 심각한 학내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대구예술대학교(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서 한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시각디자인학과 A(56)교수는 지난 22일 오후 8시에 대학 건물 3층 복도에서 숨진 채 동료 교수에게 발견됐다.
A교수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학교측이 민원인도 없는 투서를 근거로 검찰 조사를 받게 했다'며 '조사내용이 터무니없고 근거도 없어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지만 근거도 없이 검찰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2014년 편입생 만학도의 성적 및 불법 졸업심사 등을 거론하며 '총장 주변 측근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A교수가 유서에서 거론한 '편입생 만학도의 성적 및 불법 졸업심사'에 대해 이 학교 학

생들과 교수협의회는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편입한 여학생이 학교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졸업작품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들조차 모르게 졸업시킨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의혹을 숨긴 A교수가 최초 제기한 것을 전제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A교수가 학교의 갑질 횡포와 마녀사냥식 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통하다"며 "A교수는 학교비리 진상조사를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총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고인의 사죄를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애도성명을 통해 "A교수가 자신의 귀한 목숨을 끊으며 비민주적 대학권력의 만행을 세상에 고발했다"며 "거짓과 독선의 부당한 힘이 여전히 대학에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당국이 교수협의회 소속이었던 A교수를 사찰하고 탈퇴를 강요했다하니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면서 "A교수의 자진은 온갖 전횡과 그 부당한 힘에 빌붙어 같은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부역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즉시 재단법인 세기학원과 대구예술대학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예술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무·입학·기획업무 총괄하는 B보직교수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총장은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다. 대학 측은 "답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대학 재단측은 "학교의 학사운영은 재단의 관할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에 물어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학교는 겨울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박노균 기자

대구은행 노조 "김태오 지주회장·이사회는 책임 다하라"

대구은행장 후보 선정 두고
지주이사회-은행이사회 충돌

은행장 선임과 전 임원 부당 해고를 싸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DGB금융 내부에서 김태오 지주회장과 지주 이사회의 성실한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대구은행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대구은행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엄격한 실태를 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해남이를 할지 모르는 암울함과 리더십 부재와 조직의 불안감 증폭, 책임 있는 자들의 보신주의, 경영진들의 이해 다툼에 참혹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오 회장)취임 후 3~4개월 정도 면 조직 안정화를 완료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9개월여간의 은행장 직무대행 체제를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분들이 책임과 소임을 다했는지 질문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퇴임 임원들의 부당해고 등으로 연일 전국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며 "부당해고라는 은행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다시 미숙한 대처로 은행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퇴임했던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금전 보상이 아닌 원직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20일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과 8월 8일 진행된

김태오 지주회장과 두 차례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국회의원 등 외부기관 압력설을 제기했다.
현재 대구은행은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명훈 현 은행장 권한대행 이후 체제의 은행장 후보 선정을 두고 지주 이사회와 은행 이사회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행정 후보를 선정해 지주 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지주 이사회는 행정 후보 선정 권한은 내부 규정상 지주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위원회(자추위)에 있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서 김태오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구은행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경수 기자

김천농협조합장, 사전선거운동 '의혹'...선관위 조사 착수

조합원과 김천농협 조합장
동기생 상대로 집중 조사

내년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김천농협조합장이 고등학교 동기 야유회를 빌미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지 21일자 1면 보도)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고교 동기생 등과 야유회를 동행해 식사와 선물 등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특정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유회를 빌미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위법하지만,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태 등을 파

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북도 선관위는 이번주부터 야유회에 갔던 조합원과 김천농협 조합장, 동기생 등을 상대로 야유회를 가게 된 동기, 지지 발언 내용, 선물 제공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천농협 A조합장은 지난달 14일 김천의 모 고교 27회 부부모임 36명을 충남 보령군 오천농협으로 데려가 회를 결집인 식사와 선물(갓갈셋트, 구운소금)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A조합장과 농협간부 지도자 과정 동기인 오천농협 조합장은 식사 도중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A조합장을 선거에서 압승



시켜야 튼튼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어 이 모임을 주선한 동기회장도 "내년 선거에서 A조합장을 거명하면서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 참석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과 동문들은 "A조합장의 보령 야유회 동행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진 기자

대구 약령시 랜드마크, 한방의료체험타운 (’19.6월 개소 예정)

한방 의료·뷰티체험, 한방 문화체험 및 교육, 한방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 공간 제공, 한방제품 전시판매장·한방산업홍보관 운영

- 위치 : 대구 중구 종로2가 39-1
-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2,608㎡)

한방카페/먹거리

약령시 우수 한방제품 전시 및 판매

한방산업 홍보관

한방 문화·의료체험

한방 스타트업 창업공간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시, 재난안전 대비 기동감찰

26일~내년 2월 28일까지
대설·한파·화재·축제 대비
안전대책 추진 실태 확인

대구시는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기동감찰을 추진한다. 시는 재난예방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수행 적정 여부에 대해 구군, 본부, 공사공단에 대해 불시 감찰을 시행한다. 또 화재분야는 소방안전본부와 협업을 통

해 추진하며 업무태만 및 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사례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각 기관별 수립한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실태 및 현장작동 여부 △사고발생 취약분야 및 중요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응태세 △대설·한파·화재·연말연시 축제 등에 대한 세부 재난안전 추진실태 확인 등이다.

또한 △대설에 따른 도심 및 외곽도로, 주요 고갯길 제설 및 대중교통 대책 수립에 따른 장비·자재 등의 확보 △산악지역 통제구역 지

정 및 등산객 안전대책 △노후시설물 및 고립 마을 안전관리 △한파시 취약계층보호 및 시설 농작물 보호체계 구축 현황 △상수도 동파 예방 실태 △제야의 타중 및 신년 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등 축제에 대한 재난안전 예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시는 지속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안전도시 대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충희 기자

대구시, 침체된 중국 의료관광시장 재공략

중국세계의료관광연맹 포럼 참석
중증환자 치료분야까지 확대 기대

대구시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침체된 중국의료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베이징에서 중국세계의료관광연맹 측에서 23일 개최된 포럼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28일 권영진 시장과 연맹 구신 대표이사와의 면담 후속조치로 연명회에서 시를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이뤄졌다. 중국세계의료관광연맹(GCMA)은 중증환자를 미주, 유럽, 일본으로 송출하는 전문 에이전시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지난 7월 대구 메디엑스포에 참여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형미용에 치우친 중국의료관광객을 중증환자 치료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대구시, 대구컨벤션뷰로, 경북

대학교병원, 울포스킨피부과에서 한 세션씩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우선 시는 '대구의료관광의 장점 및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발표했고, 대구컨벤션뷰로에서는 '제1회 아태안티에이징코스 성과 및 2019년 제2회 아태안티에이징코스 전망'을 설명했다.

또한 경대병원은 '한국의 중증환자치료를 위한 선진의료기술과 환자케어의 우수정책에 대해 언급했고 울포스킨피부과는 '한국 안티에이징 및 의료미용 기술의 우수성과 환자만족서비스'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2일에는 중랑그룹 건강과학기술원에 방문해 대구첨단복합단지과 수성의료특구와의 상호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사드 사태 이후 침체된 중국의료관광객의 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형미용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충희 기자

대구시, 이동약자 교통사고 경감·편의 증진 도모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시민공청회
이동약자용 개인 이동 수단 개발
안전한 이동 위한 환경개선 시급

대구시는 26일 대구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준비 중인 이동약자용 개인 이동수단 개발과 실증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2개 이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위해 수요조사, 기획연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는 그간 이동약자들을 위한 이동기기 개발과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관련 기관이 참여해 사전기획을 실시했고 지난 10월 다부처 공동기획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동약자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계층을 말한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 명이 교통약자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감

에 따라 대중교통을 보완해 줄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구시 교통사고 30%줄이기 프로젝트 전문위원인 도로교통공단 김정태 박사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45% 이상이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이동기기 개발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핵심기술개발 지원)를 주관부처로 행정안전부(관련 법제도 개선)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공동사업으로 기획할 계획이다.

내년 1월말경 최종 심사를 통해 사업추진이 확정될 경우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개발과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충희 기자

동구, 성탄 전야 소목골 '사랑의 물레 산타' 출정



효목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외된 아동과 어르신 가정에
산타복장으로 방문 선물 전달

대구 동구 효목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환철, 이신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산타복장을 한 소목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여명으로 사랑의 산타봉사를 구성한 후, 관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아동 및 어르신 6가구를 직접 방문후 아동 패딩, 어르신 내의 등 크리스마스 선물꾸러미

(각 10만원, 총 60만원 상당)를 직접 전달 및 위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평소 소외된 어린이 및 어르신을 위로방문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정환철 공동위원장은 "성탄절을 맞이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어떻게든 따뜻한 정을 베풀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자발적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동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식물과 함께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4회 걸쳐
어르신 200여명 대상 원예체험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5일, 20일 4회에 걸쳐 특수학교 학생, 노인시설 및 경로당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원예체험 행사는 실내생활이 많은 겨

울철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물의 역할과 가꾸고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화분을 장식해 봄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실내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식물이 있으면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걸 알았다"며 "화분을 직접 꾸며보니 너무 재미있고 화사한 꽃을 보니 행복해진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충희 기자

대구소방, 내년 2월 28일까지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구시 내년 2월 28일까지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 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본부는 올한 해 동안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치한 바 있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기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써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게 됐고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이내도 주차 금지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충희 기자

대구시, 연말 대비 시내버스 연장 운행

급행 5개 노선·도시철도 연장

대구시는 연말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시내버스 급행 5개 노선 및 도시철도운행시간을 연장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1, 2, 3, 5, 6번의 막차 운행시간이 28일~30일까지는 자정까지 운행하고 31일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장기로 결정했다. 김충희 기자

따라서 평소와 달리 급행버스 막차는 밤 11시 30분에 도심을 지나 종점까지 운행한다.

또 도시철도 운행시간도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야의 타중행사 인원 수송을 위해 1, 2호선은 반월당역 기준으로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누리집 및 두드리소(053-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희 기자

전화 한통이면 OK!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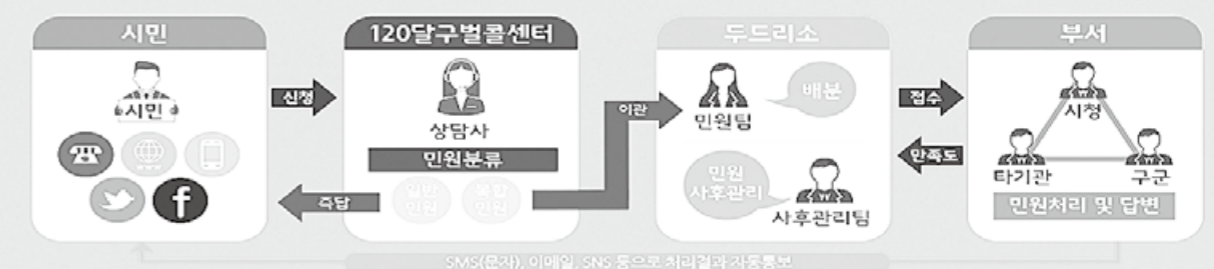
달구벌콜센터



01 120달구벌콜센터 연중무휴 / 평일 08:00~21:00, 주말 공휴일 09:00~18:00

02 상담분야 / 인권, 자살예방, 교통, 상수도,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시민안전

03 이용방법 / 전화, 문자 상담(공평함이 120), 예약상담(홈페이지에 예약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 온라인 상담(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외국어 상담(영어, 중국어, 일본어)



04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상담사와 연결이 빨라졌습니다. 모든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과정을 문자로 알려 줍니다.

민원 제안여기다 두드리소

온라인 민원 제안 대표창구

두드리소 검색

인터넷, 모바일로 언제나 ~ http://dudeurisio.daegu.go.kr http://smart.daegu.go.kr

두드리소란? 대구시의 모든 민원과 제안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제값 받고 판매 걱정없는 경북 농업 농업예산 대폭 지원

농업 예산 7295억 투입 올해 대비 387억원 증가 농식품 유통전담기관 설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제값 받고 판매 걱정없는 농업을 실현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가 내년도 농업분야에 예산을 대폭 지원한다.

경북도는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87억원 증액된 7295억원을 확보하고 농식품 유통구조개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고부가산업화 추진 및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농부 육성사업에 매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 유통시스템 혁신으로 농업인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산지 유통조직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시장 가격협상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데 22억원,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 67억원,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20억원,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물류비지원 32억원, 유통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북도 농식품 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1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농산물 출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유통서비스 지원을 위해 5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첨단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도 가속화 한다.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실습농장 조성 52억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109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설 및 지원센터 구축에 85억원을 지원해 도내 시설원에 기술력을 한층 더 높이고 농업의 과학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경북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도전과 정착도 단계별로 지원한다.

농업계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과 소규모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 2억원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월 80~100만원씩 13억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가공 등 본격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아이디어 발굴, 제품개발, 산업화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에도 3억원을 지원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젊고 활기찬 농촌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새로운 농업소득원 발굴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과 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득 증대사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물론 고령화와 농업소득의 정체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경북농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 트렌드와 농업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북농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 팍팍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증서 수여식」 1일시 : 2018.12.4.(월) 10:30 | 장소 : 경북도청 영안민관 다목적홀

46개 청년고용 우수 기업 지정증서 수여 근로환경개선 사업 11억6000만원 지원

경북도는 지난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8년도 하반기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청년채용으로 지역발전 기여한 46개 청년고용 우수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확대에 노력한 기업대표들을 격려했다.

올해는 상반기 265명의 청년고용을 한 25

개 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지정과 지원에 이어, 하반기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46개 기업(신규 41·추가 5502명 청년채용)에 청년채용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0~5000만원을 지원해 기술사, 체력단련실, 휴게실, 식당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운데 고용유지율이 높고 지속적인 청년고용과 고용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한 5개 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추가 고용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해 총 140개 기업(청년채용 1,864명)을 선정, 38억원의 근로환경개선사업비를 지

원했다. 내년에는 소규모 맞춤형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채용정보제공서비스, 지역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 구인·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과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애써 오신 기업대표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청도복숭아연구소 정경미, 지방행정 달인 선정

농업기술대상 우수상 연구팀상 수상 3관왕 가공 기술 개발 성공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세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청도복숭아연구소 정경미(사진) 농업연구사가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경미 연구사는 24년 4개월간 신의 과일인 복숭아와 딸은 감 가공 기술 개발과 현장 문제 해결로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신과(神果) 함께한 가공연구의 달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정경미 연구사와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복숭아 품종 육성, 안정 생산 기술 및 복숭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공기술 개발'로 최근 3년간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업

기술대상 우수상과 연구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요 공적으로는 복숭아와 딸은 감 가공품, 가공 기기 13종을 개발해 특허 출원 및 등록(17건)한 후 산업체에 기술이전(14건)을 실시해 가공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33건의 논문 게재와 학술발표를 했다.

복숭아 고추장은 나트륨 저감화 및 복숭아에 풍부한 칼륨 함량의 증가에 따른 건강 진화적 제품으로 우수 특허대상을 받았으며 딸은 감 가공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감말랭이, 아이스홍시 등 368억원의 매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정경미 청도복숭아연구소 농업연구사는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신념으로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히고 "세 자녀를 키우며 직장 일을 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으나 오히려 아이들이 인생의 희망과 스승이 되었다"며 "여성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역할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운행 기자

올해의 MVP 공무원에 김충현·임양숙 씨 선정

공무원·시책유공 공무원 8명 선발



김충현 씨



임양숙 씨

올해 경북도 최우수(MVP) 공무원에 진한 경농업과 김충현 주무관과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임양숙 연구사가 선정됐다.

경북도는 올해 도민행복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MVP 남·여 각 1명과 시책유공 공무원 8명 등 총 10명을 '2018년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충현 주무관은 농업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사업비 1,600억원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해 정보통신기

술 기반 농산물 클러스터 조성으로 청년창농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임양숙 연구사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종합대책을 농도 경북의 실정에 맞게 수립·추진해 농민 피해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력을 크게 인정받았다.

시책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된 산림자원과 권역제 사무관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유통센터 조성, 양묘 시설현대화 사업 등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했다.

미래전략기획단 권춘미 주무관은 저출생 극복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인구증가 방안으로 '경북형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차원의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시했다.

119종합상황실 김명삼 소방장은 전국 최초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소화전' 개발로 4차산업 기술을 소방분야에 도입해 최첨단 재난 대응 체계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책과 남현대 주무관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하

면서 신약개발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투자유치실 서장환 사무관은 국내의 투자유망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여건조성 지원 역할을 하는 '투자유치특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경북도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농촌개발과 염태우 사무관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공모사업 준비를 통해 경북이 '2019년 농촌개발사업'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국비 1,048억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국제통상과 정성웅 주무관은 지자체가 주최한 첫 국제 지방정부 포럼인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경북도가 정부의 신북방정책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자연재난과 최성원 주무관은 상습 풍수해 피해 발생지역의 재해위험지역비 시범사업 추진, 태풍 롬비에 피해 복구, 폭염 피해예방 등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선정됐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018년은 민선7기를 시작하는 해로 '새바람 행복경북'을 로진 아래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받았던 이 일한 직원 모두가 경북도청의 MVP이자 보배"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지구촌에 물려 퍼지는 희망의 메시지... 새마을운동!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사업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 농촌개발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여러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일방적인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인류공영을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새마을세계화재단

난마처럼 얽힌 민생법안 임시국회 결국 빈손되나

여야 '6인협의체' 유치원 3법 논의했지만 협상 결렬 산안법, 일부 의견 접근 우리 속 추가 논의 앞둬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 '공기업 채용비리 국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임시국회라는 수를 내면서까지 어렵사리 머리를 맞췄지만 협상은 각 당의 난마(亂麻)처럼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탓에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시국회도 별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현안 논의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6인 협의체'를 구성해 타파지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비 목적 외 유용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그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제재를 원하는 한국당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교육위법안소위원회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6인 협의체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간사 간 협의가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법안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당연히 그 안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주장할 경우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벌였다. 정화와 개혁을 반복한 끝에 여야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6일 오전 회의를 재개해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 논의의 상황에 따라 최종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견을 많이 좁혔다"면서 "26일 오전 9시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27일 본회의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하려고 한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던 주요 쟁점들 역시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순탄치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사항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文대통령, 성탄 메시지 “내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박노해 시인 시 인용 “애뜻한 할머니 마음이 예수님 마음”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성탄절 메시지는 생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낸 성탄 메시지에서 박노해 시인의 '겨울의 시'를 인용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노해 시인의 '겨울의 시'는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관찰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라는 3연으로 이뤄져 있다.

문 대통령은 “애뜻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며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양산의 덕계 성당을 찾아 성탄 전야 미사를 올렸다.

문 대통령이 성탄절 메시지를 낸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성탄절 나흘 앞두고 벌어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인해 별도의 메시지 없이 성탄음악회만 참석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주교 세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2012년 이후 줄곧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짧은 성탄절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2013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12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탄 밤 미사 마치고 돌아와 포도주 한잔 앞에 두고 있다. 평소 보수적인 것 같았던 신부님도 강론에서 ‘이 시대가 안녕하신가’고 물었다”면서 “성탄의 밤이면 다짐하곤 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평화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길 빌어 본다”고 적었다.

이듬해인 2014년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낮은 삶을 생각한다. 태어남도 지극히 낮았다”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권력과 강함이 아니라 낮음과 약함이다. 착함·관용·너그러움·포용·나눔 같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에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춥고 외로운 분들에게 따뜻함이 골고루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길 기원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온기를 나누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6년 촛불정국 속에서 맞이한 성탄절에는 김상호 신부의 미사내용을 소개하며 “불세출의 영웅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불세출의 영웅은 우리를 모른다”며 “우리와 함께 살았고 우리와 함께할 우리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가 구원의 주체라는 사실”이라고 적기도 했다.



뉴스스

정의당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정의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있는 자들에게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2018년 예수가 한국 땅에 온다면 마구간이 아니라 409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지상 75미터 높이의 굴뚝이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천년 전 예수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왔다. 예수는 계층간 소통이 없던 사회에 벽을 허물고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베풀수 있는 기적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어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은 살기 위해 서로 다투어야 하는 양극화의 이 시대에 예수의 나눔과 섬김의 기적이 간절히 요구된다”고 했다.

뉴스스

바른미래 “예수 그리스도 정신, 사회 평화·정의로 꽃 필 것”

고 윤창호, 김용균 등 고귀한 희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바른미래당은 25일 “성탄절 야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사랑과 희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평화와 정의로 꽃 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상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기원하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춥고 외로운 곳에 은혜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올 한해 안타까운 희생으로 사회의 경증을 울린 사건들이 이어졌다”며 “바른미래당의 희망, 고 윤창호씨의 꿈, 고 김용균씨의 뜻이 보다 믿을 수 있는 국방 장비, 응급안전 차량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이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귀한 희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우리 곁에 항상 같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공항 갑질’ 김정호 사과 기자회견 내일 하려다 앞당겨



‘공항 갑질’ 논란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사진)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 김 의원은 앞서 해당 직원과 한국노총 공공

연맹 한울타리노조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김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을 서둘러 정리하라”는 당 내부 권유에 따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서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마침 근무하고 계셔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공항 보안 노조 위원장에게도 전화를 드려 정중하게 사과했다. 언론에도 사과문을 보내고, 내일 오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덕의 소치다.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국회의원의 무게를 질질하게 느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55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경남 김해로 떠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진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 달라는 공항 보안요원의 요구에 강압적인 행동을 해 논란을 초조했다.

뉴스스

文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62%

긍정 30.3%, 무응답 7.7%

대우경북지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역민 62%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잘한다 응답은 30.3%에 그쳤다. 무응답은 7.7%로 나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지역민 44.4%는 ‘매우 잘못함’으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을 평가했다. 이는 ‘매우 잘한다’라는 12.4%를 4배 가량 앞서는 수치다.

이는 어려운 지역경제, 부동산 대책 실패,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및 자영업자 문제, 민간인 사찰 의혹, 답보상태인 북한 문제 등이 부정적인 답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초반 70% 가량 지지했던 지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은 심각하다”며 “경제 문제 해결과 북한, 도덕성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돌아다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종희 기자

청렴·세상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가 시작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 공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종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무수행 사인(私人)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등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나라, 신뢰의 대한민국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떠한 형태의 금품 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허용됩니다.

음식물: 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 ① 음식물 제공자여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디거·주류·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 원**
- ② 선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 원**
- ③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회관·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 원**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접대문화 NO,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위를 이용한 특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 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는 소속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정부

이철우 지사 “지방소멸 극복, 이웃사촌마을이 해답”

이철우 경북지사 신년인터뷰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과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외치며 취임 후 6개월을 ‘신바람 행복 경북’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올해가 이런 정책이 달리도록 출발선을 그은 해였다면 새해는 본격적인 질주의 해가 될 것이다. ‘이철우 브랜드’가 될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의성군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새롭고 다양한 정책도 뼈대를 갖췄다. 남북교류 시대에 대비한 경북차원의 사업들도 여러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내년 경북도에 어떻게 투영돼 얼마나 크고 많은 희망의 결실을 맺을 것인지 자세히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다음은 이 지사와 일문일답.

-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경북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느낀 점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경북 곳곳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반년이 지났다. 6개월 동안 분청 관공차로 달린 거리만 4만1656km다. 지구 한 바퀴를 달린 셈이다. 의원실로부터 현장을 중요시 해온 것도 이유였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된 도정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한 지사 솔선수범의 결과인 것 같다. 지사가 의전없이 직접 청와대와 중앙부처, 필요한 곳은 어디든 먼저 방문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엔 긴가민가하던 공직자들도 격식보다는 일을 더 챙기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취임식을 대신했던 직원조회에서 지사부터 운동화 신고 노력하겠다는 말이 반말이 아닌 앞으로 보여드리겠다. 그 결과 정말 힘든 시기에 차분하게 노력해 내년도 국비에 산 3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문화관광

‘이웃사촌마을’ 성공시켜 전국 모델 되게 할 것
3900억 국비 추가 확보, 운동화 닳게 하면 된다
새해 키워드는 ‘저출생 극복’ ‘관광·농업 진흥’
3대 가속기 이용한 바이오·드론 산업에도 주력
북한 참여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열겠다

과 농업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힘찬 첫걸음을 뗐다. 새해는 더 큰 발걸음을 디딜 차례다. 경북만이 지닌 잠재력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 경북의 2019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으로 보는가.

“잡아위원회’로 도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경북 4개년 운영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다. 인구소멸, 경제침체의 높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농촌의 도시화를 더욱 확장시켜 일자리 문제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경북이 제시하겠다. 과학적 인센티브와 함께 정주여건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으로 침체된 구미, 포항 공단을 활성화 시키겠다. 문화관광, 농업을 비롯해 경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보다 새롭고 매력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와 동시에 기존 산업 인프라의 체계개선으로 새로운 4차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 재임기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인가.

“세계로 열린 경북의 문화관광 시대 창출과 성공적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모델의 전국 확산이다. 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국내 등록된 세계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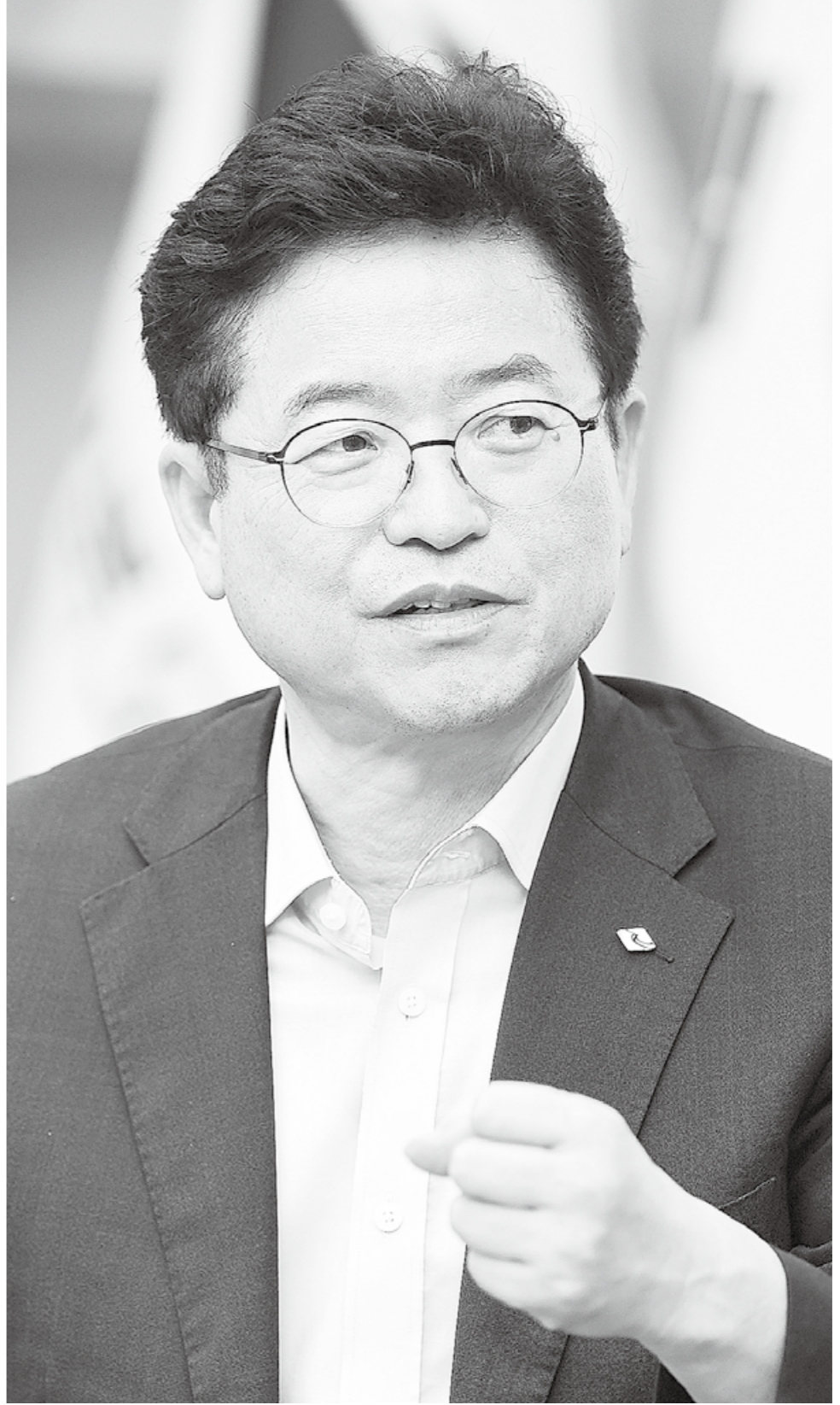
13종 중 경북이 4종을 보유한 기록에서 보듯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자원이 넘친다. 인프라는 충분하다. 문화관광공사를 확대개편 해 체계적인 국내외 마케팅에 힘 쏟고자 하는 이유다. 특히 문화관광 산업은 고용효과가 여타 산업보다 월등히 높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는 기업 투자유치의 여백을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효과가 뛰어난 문화관광으로 받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농촌을 도시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그러했듯 경북에서 시작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아가는 마을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살길을 경북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북에서 한국의 살길을 찾겠다는 포부로 도정에 임하겠다”

- 특히 내년 도정의 중점 추진 정책은 무엇인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시설까지 아우러진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선진국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관광공사를 확대·개편해 국내외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도 경북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정리하고 경북 농산물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또 미래 농업의 희망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발맞춰 스마트 원예단지, 임대형 스마트 팜 등 각종 시설과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가속기를 보유한 강릉을 살려 바이오 생명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드론 산업에도 힘 쏟아 전문인력 양성부터 국제 드론 축구대회 개최까지 확장해 나가겠다.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낙후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메가 프로젝트 기획단도 운영 중이다”

- 지사 취임 전부터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강조했는데.

“300세대 규모의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 의료, 교육, 문화가 어우



러진 생동하는 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농촌유휴지, 스마트팜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청년이 스스로 만족하며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울 수 있는 정착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의성에 조성하는 시범마을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까지 이 모델을 확산시켜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살아가는 마을이 넘치는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맞아 경북도가 준비하는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한 단계 경제협력벨트의 핵심은 바로 동해안이다. 동해안은 경북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한국

은 북한과 함께 러시아로 연결될 육상, 해상로를 구축해 신북방경제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경북도는 이에 대비해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를 비롯해 동해 남부선 조기 구축 및 동해안 유일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 항을 북방물류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뿐만 아니라 환동해 크루즈 관광 삼각벨트를 조성하는 등 관광지구를 형성시키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북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책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경주와 개성 혹은 평양을 연계한 문화엑스포를 개최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류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새마을 사업, 산림녹화 사업, 종자사업 등 경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차별화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이철우(오른쪽) 지사가 지난 10월 2일 경북-대구 상생방안을 논의하고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팔공산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문화가 있는 날! 이번 주말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 제공하고, 야간개장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날입니다. 무료·할인 혜택을 확인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쯤은, 문화로 소풍가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 할인: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관람료(20시~24시) 무료
도서관 야간개장: 전국 도서관 야간개장 관람료 무료
공연 관람 할인: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관람료 무료
문화재 관람 할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문화유산 관람료 무료
전시 관람 할인: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전시 관람료 무료
스포츠 할인: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하키팀 관람료 50% 할인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주 방폐장 방폐물 반입중단 예고

(중저준위)



경주시의회, KAERI 방폐물 방사능 분석 데이터 오류 재발방지 촉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운반될 원전 방폐물에 대해 당분간 반입중단이 예고됐다.

경주시의회가 지난 21일 중저준위 방폐장에 반입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방폐물의 방사능분석 데이터 오류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방폐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간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이날 제2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및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중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방폐물 처분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공단은 지난 6일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반입 및 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가 발생한 방폐물 책임자를 총체

적으로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어 "방사능데이터 분석 오류에 대한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미 처분된 방폐물에 대해 전수 재검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방폐장 인접 양북면 주민 100여명도 방폐장 입구에서 방폐물의 반입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공단은 "울진에서 오는 방폐물 반입을 중지시키고 민간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을 민간환경감시기구와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또 "민관합동 조사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역주민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단을 구성하고 방폐물 검사체계를 개선해 지역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저준위방폐장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00드럼 반입됐고, 그중 1834드럼이 처분됐다.

하지만 연구원 자체조사에서 945드럼에 대한 방사능분석 데이터 오류가 확인됐고, 향후

이 수치는 규제기관 특별조사에서 증가할 수도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9월 5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이날 말까지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데이터 확인절차 수립, 담당자 교육,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핵종분석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 분석장비 등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단은 원자력연구원 방폐물이 처분된 사실로 방폐물 처분을 중지할 계획인 가운데 이미 반입된 고리원전 585드럼과 월성원전 535드럼, 총 1120드럼을 지난 19일 처분 완료했고, 지난해 8월 반입된 고리원전 방폐물 112드럼을 21일까지 처분한다.

또 지난 22일부터 한울원전에서 1000드럼, 26일부터 월성원전에서 503드럼을 반입할 예정이다. 윤용찬 기자

축의금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2019년 3월 13일)인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해당 농협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 70만원(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르면 후

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예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현직 조합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없이 상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경주시선거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대낮 흉기난동으로 경찰관 살해 40대 엄벌

대구지법 영덕지원, 징역 22년 선고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고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낮 12시 39분께 영양군 영양읍 자기 집 마당에서 영양파출소 소속 B(51)경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경위와 함께 출동한 C(53)경위에게도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대구소방, '골든타임 확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내년 2월 8일까지 단속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는 연말 연시를 맞아 내년 2월 8일까지 대구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4일 화재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대대적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올해 대구소방은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출동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전동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기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써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으며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로 단속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구미차병원 '파이프라인 스텐트' 뇌동맥류 치료 성공

권태형 신경외과 교수팀 파이프라인 스텐트 설치술 경북 서·북부권 첫 시술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은 권태형(신경외과) 교수팀이 '파이프라인 스텐트'를 이용해 뇌동맥류 치료에 성공했다고 지난 21

일 밝혔다. '파이프라인 스텐트' 시술은 경북 서·북부권 첫 시술이며 전국적으로도 시술건수가 많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치료법이다.

최근 시술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는 뇌혈관의 하나인 두개강내 왼쪽 내경동맥에 22mm 크기의 대형 뇌동맥류가 생겨 파이프라인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후 상태가 호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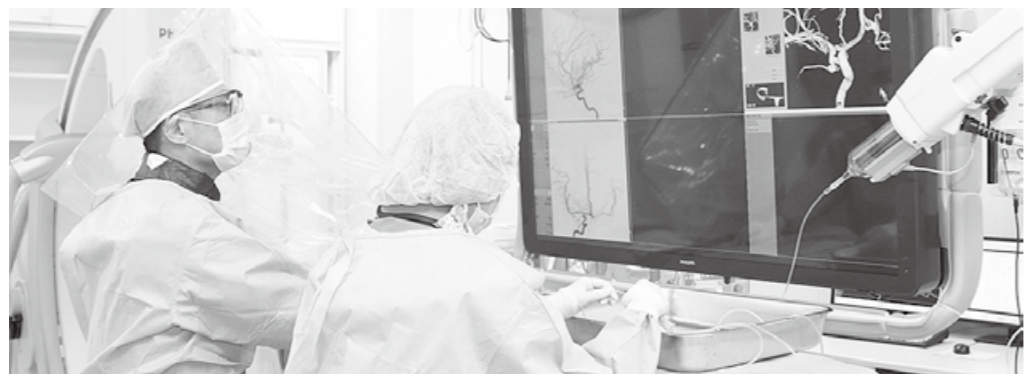
어졌다. '파이프라인 스텐트 설치술'은 뇌동맥 속에서 스텐트(금속튜브) 삽입으로 혈류의 방향을 전환시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최신 시술이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파이프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동맥류가 부풀어 약해진 혈관 벽이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진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 생존하더라도 사지마비와 뇌 기능 손상을 가져오는 무서운 질환이다.

권태형 교수는 "뇌동맥류의 최신 치료인 파이프라인 스텐트 시술 성공으로 지역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술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차병원은 최근 제2 심·뇌혈관활영실 개소로 응급환자 동시 시술이 가능하고, 전문 의료진과 최신 장비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은진 기자



구미차병원 신경외과 권태형 교수팀이 뇌동맥류 시술을 하고 있다.

당진영덕고속도로서 승용차 불...2명 사망

경북소방본부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지난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의성 방향 서의성IC 부근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로 인해 숨진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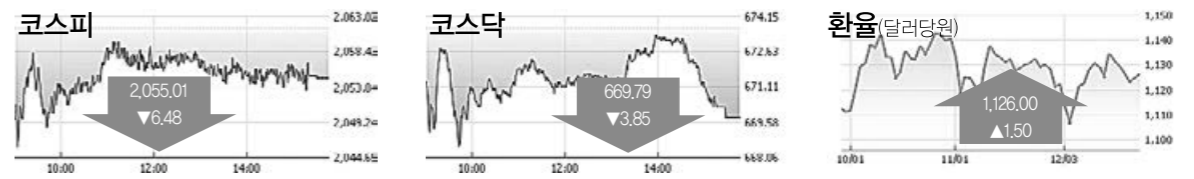
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재성 기자

방향지시등 **깜박 깜박,**
매너운전 **반짝 반짝**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뒷차에게 **나의 진로를 꼭 알려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안 센트럴D’ 견본주택 ‘문전성시’

사흘간 2만5000여명 내방객 방문 KTX동대구역 초역세권 입지에 1179세대 대단지로 공급돼 인기 아파트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오피스텔 27, 28일 견본주택서 청약

대구산업개발은 지난 21일 문을 연 ‘이안 센트럴D’ 견본주택에 개관 3일간 2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 신암동 235-1 일원에 들어서는 ‘이안 센트럴D’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 동, 총 117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스아파트 전용면적 59㎡~116㎡ 999세대(일반분양 706세대) △오피스텔 51㎡~68㎡ 180실(일반분양 155실)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은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다. 대부분 사업자가 위치한 동구 및 수성구, 달서구, 북구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었고 경산지역에서도 견본주택을 찾았다.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48)는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이 바로 앞이라 입지가 좋은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계속 분양을 기다려왔다”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노후 단지라 이 참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력 평면이었던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비롯해 84㎡B와 116㎡ 등 전 유니트마다 방문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구산업개발이 올해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처음으로 선보인 특화설계 ‘살림착착’도 반응이 뜨거웠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돼 의류 건조기, 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슬라이딩도어 등이 무상으로 제공돼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북구에 거주하는 박모씨(33)는 “전시된 전용 84㎡A타입은 넓은 거실공간에 드레스룸과 현관 팬트리도 넉넉해 실용적이었고, 분양가도 생각한 거에 비해 합리적인 편이라 마음에 든다”며 “특히 모든 타입이 주방과 다용도실, 팬트리가 연결된 살림착착이라는 신평면이 적용돼 편의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안 센트럴D’의 분양가는 3.3㎡당 평

군 1467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60% 무이자 용자 혜택이 제공된다.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 판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오피스텔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청약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7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21-23일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27, 28일 이틀간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은 뒤 내년 1월 2일 당첨자 발표 후, 3-4일 2일간 계약을 실시한다.

대구산업개발 관계자는 “대구 교통의 허브인 동대구역 인근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며 “KTX·지하철1호선 동대구역 초역세권에 신세계백화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입지가 우수하고 특히 이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돼 미래가치도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 345-18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9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53-214-8900) 최경수 기자



지난 21일 문을 연 대구산업개발 ‘이안 센트럴D’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2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KTX·대구지하철1호선 동대구역 역세권 입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포스코, 원료수송 전용 선박 탈황설비 본격 장착

전용선 팬보나號 첫 작업
황산화물 90% 감축기대
내년 말까지 전용선 20척
유류비 연 700억원 절감

포스코가 원료수송선에 탈황설비(일명 스크러버, Scrubber)를 본격 장착해 황산화물 배출 저감에 앞장선다.

황산화물(SOx)은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함유돼 있는 황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물질로, 포스코는 지난 14일 중국 수리조선소에서 팬보나(Pan Bona)호의 탈황설비 장착에

들어갔다.

팬보나호는 국내 벌크선사인 팬오션의 18만 톤급 대형 선박으로 포스코와 2031년까지 장기 운송계약을 맺어 호주산 석탄과 철광석을 포함하고 광양 제철소로 운송해오고 있다. 정박한 40일 동안 설비장착, 정기점검, 기관정비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며 완료 후 황산화물 배출을 약 90% 감축할 수 있다.

이번 작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배출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 비율을 3.5%에서 0.5%로 86% 감축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진 기자

포스코는 이번 첫 탈황설비 장착을 시작으로 환경 규제 발효 전인 내년 말까지 20척의 전용선에 탈황설비 장착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 작업을 통해 연간 700억원 이상의 유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사가 KDB산업은행의 선박금융을 이용해 조달하며 포스코는 향후 장착비용 전액을 선사에 운임으로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포스코는 원료 전용선사 및 국내의 선박엔지니어링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 지원해 탈황설비 장착을 완료하고 국제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동진 기자

가스공, 참신한 국민생각 모아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공모 시상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가스공사 스마트위크센터에서 ‘2019년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임창수 경영협력처장을 비롯해 각 부문별 수상자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국민참여형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차원 높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고자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예술 등 사회공헌 전 분야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총 182건의 출품작 중 15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소외계층 간이소화기 보급사업’, 우수상은 ‘학교로 찾아가는



KOGAS’ 등 3건, 장려상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가스난로 프로젝트’ 등 11건이다.

가스공사는 수상작에 대해 임직원 선호도 조사 및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후 2019년은 누리 사회공헌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경수 기자

화성산업, 광명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선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열어 선정

대구 수성구 광명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화성산업이 선정됐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청운아트센터에서 시공자선정을 위한 2018년 정기총회를 열고 화성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996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0층, 총 171가구, 전용 59㎡, 73㎡, 84㎡, 103㎡, 128㎡(펜트하우스), 144㎡(펜트하우스)로 구성돼 있다.

광명아파트는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대로, 동대구IC를 통해 대구시내외는 물론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세권에 이용이 편리한 KTX동대구역 등 다양한 교통망을 가지고 동성로 등 시내 중심지역으로의 진출이 편리하다.

또 인근에는 병원, 검찰청, 구청,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과 수성구 명문학교, 범어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이 있다. 무엇보다 범어네거리와 인접한 수성구 최중심에 위치한 입지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단지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성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60년 건설역사와 함께 풍부한 재건축 사업실적과 노하우,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역량 뿐만 아니라 입면, 평면, 시스템, 커뮤니티 특화에 이르는 명품설계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었고 특히 파크드림의 브랜드가 경쟁사보다 앞섰던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경수 기자

DGB사회공헌재단, DGB청소년 자원봉사대상 시상

중등부 ‘하늘사랑과학동아리’ 팀 고등부 효성여고 이예원 학생 대학부 영남대 ‘영지회’ 팀 ‘최우수’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린 대구자원봉사 정기포럼에 참석해 ‘제7회 DGB청소년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DGB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대구자원봉사포럼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자 중 우수 봉사자를 격려하는 자리다. 올해에는 대구 중·고·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개인 및 단체)을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실적을 심사해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수상자들이 결정됐다.

심사 결과 중·고·대학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3개 팀(명)과 특별상 1팀 등 총 10개 팀(명)이 선정됐다.

제7회 DGB청소년 자원봉사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중등부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하늘사랑과학동아리’ 팀, 고등부 효성여고 이예원 학생, 대학부 영남대학교 ‘영지회’ 팀이 선정됐다.

시상에는 조혜년 대구노블레스 봉사회 회장, 대구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김해연 과장, DGB사회공헌재단 신원식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시상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꽃다발이 수여됐다. 최경수 기자

제주항공, 대구~다낭·타이페이 신규 취항

주 7회 매일 운항 일정



제주항공이 대구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다낭과 대만 타이베이 등을 잇는 하늘길을 열었다.

지난 2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 노선과 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주 7회(매일) 운항하는 일정이로 신규 취항했다.

대구~다낭 노선은 대구공항에서 오전 6시 50분(월·수·금요일은 오전 7시 30분)에 출발

해 다낭에 오전 9시 40분(월·수·금요일은 오전 10시 10분)에 도착한다.

다낭에서는 낮 12시 10분(수요일은 오후 1시)에 출발해 대구에는 오후 6시 10분(수요일은 오후 7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대구~타이페이 노선은 대구공항에서 오후 10시 20분에 출발해 타이페이에는 밤 12시에 도착하고 귀국편은 오전 2시 타이페이를 출발해 오전 5시 10분 대구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항공은 대구~타이페이 노선 신규취항에 맞춰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3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편도 항공권을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운임)을 기준으로 최저 5만3700원부터 판매한다.

특가항공권 판매는 내년 1월 6일까지이다. 예매는 제주항공 누리집(www.jejuair.net)과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에서만 할 수 있다. 예약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운임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김성용 기자

울진 부구중 매봉오케스트라 한울본부 홍보관서 공연 펼쳐

성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부구중학교 매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부구중학교 오케스트라는 목관 앙상블, 금관 앙상블, 색소폰 앙상블 공연 등 총 13곡을 마련해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학생들의 연주에 관객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고 학부모의 입가엔 흐뭇한 웃음꽃이 만발했다.

한울본부는 교육장학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부구중학교 매봉오케스트라에 연간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연주회를 찾은 울진군민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담긴 연주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동심을 되찾는 감동스런 공연이었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형삼 기자

농협상호금융, 기해년 황금돼지 선물 이벤트

총 105명, 황금돼지 등 푸짐한 경품 5주간 제공

농협상호금융은 다가오는 2019 기해년 새해를 기념해 대고객 감사 이벤트를 지난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콕뱅크의 비대면 금융상품가입을 하거나, 콕푸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 콕팝 조합원 회원 가입 고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하나 이상의 조건만 충족해도 추첨을 통해 매주 1명 황금돼지 1돈, 20명은 콕푸드 이용권 5만원을 선물로 제공하는 등 5주 동안 총 105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새롭게 업데이트한 NH콕뱅크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간편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정 로그인만으로도 송금,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농산물 직거래, 농촌생활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모

바일 간편뱅킹 서비스이다.

소셜로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이번 경품 행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고객이 NH콕뱅크의 간편한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2019 기해년 새해에는 모든 고객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수 기자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우수학생 기숙형학원
위탁사업 오리엔테이션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이희진, 이하 영교위)는 지난 21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에서 우수학생 기숙형학원 위탁사업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학부모 75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예비고 1학년(30명)을 대상으로 용인종로기숙학원이, 예비고 2·3학년(30명)을 대상으로는 남양주 스카이에듀기숙학원이 교육운영과 입소과정을 안내했다.

김성용 기자



어린이놀이터 공모 선정
울진군 5억3천만원 확보

울진군은 지난 18일 경북도지사 주관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을 만들어 가는 2019년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공모 대회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돼 사업비 5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안전재난건설과와 엑스포공원 사업소가 배성길 부군수의 도청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부서간 협업을 통해 창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이번 공모 사업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엑스포공원 내 1500㎡ 정도의 면적에 트리하우스 2동, 실개천을 이용한 물놀이장,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걸어가볼 수 있는 출렁다리, 나무를 이용한 네트망 설치 등 주변 지형과 자연을 이용한 숲속 놀이터로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삼 기자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 착공...내년 6월 준공

청하면 월포리 착공
장애인 일자리 창출
오랜 숙원사업 해결

포항시는 지난 24일 청하면 월포리 신축부지에서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장애인근로자,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장애인재활사업장 이전 착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청하면 월포리에 지상 2층(1층 공장, 2층 노유자 시설) 1,379㎡ 규모로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을 이전 신축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현재 30여 명의 장애인근로자 및 훈련생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현수막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 두호동에 위치한 기존 시설이 지진피해 및 공간협소로 장애인 추가 고용, 수주 물량 공급 차질에 어려



움이 커짐에 따라 이전 신축해 확대 운영하고자 새롭게 건립된다.

신축 건물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설계, 편의시설을 극대화했으며 근로 장애인들과 훈련생을 위한 일자리 및

충형 복지공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이 진정한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며 나아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으로 발전하는 첫걸음으로써 장애인근로자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할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노인의 67.1% 평소 거동 불편

영덕군,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 정책추진에
조사 결과 적극 활용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만 6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덕군 노인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태조사는 개인사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보건복지, 경제, 노후생활 등 42개 항목을 가정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43.8%는 독거노인이며 동거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주로 배우자(80.6%), 자녀(23.8%)로 나타났다. 건강 부문에서는 영덕군 노인의 67.1%가 평소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21.7%는 일상생활동중에 노출돼 있으며 7.2%가 의욕적

하 및 우울감을 느꼈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68.9%의 노인이 일반진료(61.8%)와 예방접종(27.7%)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고 그 중 78.9%가 서비스에 만족했다. 경제부문은 37.7%가 취업 상태이며 취업 노인의 59.4%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였고 12.3%가 취업(재취업)을 희망했다. 생활비 지출부문에서는 보건의료비(50.2%), 주거비(25.8%) 등에 주로 지출했다.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는 건강, 경제 상태에는 10%대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가족,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는 41.5%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노인의 생활현황과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를 노인복지 수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경주 봉황로 문화의 거리, 빛의 거리로 탈바꿈

대구은행, 1억2천만원 사업비 투자
어두운 거리 천년고도 색채 밝혀

천년고도 경주의 옛 모습과 현재의 감성이 공존하는 봉황로 문화의 거리 일대가 빛의 거리로 탈바꿈했다.

경주시는 24일 도심권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황로를 중심으로 시가지지를 가로지르는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루미나리에 경관조명 점등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경관조명은 '천년의 미소, 천년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봉황로를 상징하는 홍살문과 금관게이트와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활용해 어두웠던 밤거리를 화려했던 옛 신라의 달밤 분위기로 연출했다.

특히 지난달 보물 제2010호로 지정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를 비롯해 경주를 상징하는 금관 이미지를 첨가해 경주만의 다채로운 색채를 담았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심경제 활성화라는 대의에 적극 동참해 준 대구은행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관조명으로 봉황로가 보다 안전한 거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활기 넘치는 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추진위원회 개최

2018년도 사업 결산
2019년 신규 사업 보고



포항시는 2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GreenWay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포항 GreenWay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그린웨이

이 프로젝트 사업실효성 도모를 위해 2016년에 출범한 시민참여기구로서 100명의 시민사회 단체장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박승대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100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연말결산과 2019년 신규 사업 보고를 주요내용으로 열렸다.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올해 성과와 2019년 추진방향에 대한 하영길 환경복지국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샌트럴·오션·에코 3대분과 간사의 2019년도 신규 사업 보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으며 신규 발굴한 19건의 사업과 관련한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며 녹색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동진 기자

농촌지도자울릉군연합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에 앞장서

농촌지도자 울릉군연합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21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면 학포 일대 도로변,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촌지도자울릉군연합회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가꾸기에 앞장서 울릉군 관광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했다.

이정수 농촌지도자 울릉군연합회장은 "플라스틱 등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울릉도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아름답고 깨끗한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 활동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으로 꿈이 있는 친환경건설에 농촌지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오래된 미래도시

경주

천년이 넘는 문화재와 문화재가 될 작품들이 어울려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미래 도시 경주입니다.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최영조 경산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건설사업 조기발주설계단 출범식'에 참석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26일 오후 시청실에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눔리더에게 인증패를 전달한다.



이병환 성주군은 26일 오전 군수실에서 '행복출세임양사업 유공단체 표창'을 수여한다.

경북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고령군 우수기관상 수상

고령군은 지난 21일 오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8년 경북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성과대회' 행사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고령군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금연협의회 구성·운영, 자율방범대 및 건강도우미, 경찰서,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단체와의 연계 협력 부분에서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과 연계한 금연벽화그리기 사업 등 다양한 금연환경조성사업을 통해 고령군 성인남성흡연율은 2016년 51.9%에서 2017년 44%까지 감소했다.

칠곡군호국평화기념관서 새해맞이 제야행사 열려

칠곡군은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를 맞아 오는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2019년 새해맞이 제야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백선기 칠곡군수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해 문화 공연과 함께 타북행사, 신년인사, 소원풍선 날리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새해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각계각층 대표 18명이 낙동강방어선전투 55일간의 혈전을 기리는 의미로 대북을 55번 울리며 새해 시작을 알린다. 박노균 기자

경산시,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생활 편리·주소 활용을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

경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기관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업무 중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시설물 관리, 상세주소 부여 실적,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등 실적평가로 선정됐으며 경북도에서는 경산시가 높은 평점을 받아 우수사례발표와 더불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산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생활의 편리 및 주소 활용을 제고를 위해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했으며 특히 정확한 주소정보 전달을 위해 LED조명 도로명판, 도로명 안내 LED 조명블록 등 시민 체감형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민들의 주소사용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 도로명 부여와 대학가 원룸·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부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로명주소 홍보패출, 스티커 색칠북 등을 자체 제작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폭넓은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바른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는 성암산과 백자산 등산로 일대의 안전취약지역에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식별을 위한 국가지점번호관 37개소를 설치해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준범 기자

이승율 청도군수, 지방자치 CEO 선정

열정적인 군정 추진으로
올 한해 30여개 부문 수상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20일 서울 KR컨벤션홀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 전문가 50명이 투표로 3배수 이내의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 실적 홍보를 거친 후 투표권을 부여 받은 제15기 포럼 회원 250명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기획부서장, 기획팀장, 인사부서장, 인사팀장 등 1380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투표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정된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군수는 이번 지방자치 CEO로 선정된 평가 항목으로 △산업개발·기업유치 등 특수시책으로 지역발전 성과 △장기 현안사업의 해결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지역과 주민의 이미지 제고 △지방재정의 획기적 개선으로 자치경영의 성과 창출 △기타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CEO 이미지 부각 분야에 골고루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군수는 군정에 대한 애착과 열정적인 군정 추진으로 청도군이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올 한해 이미 30여개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의 수상으로 상사입비 2억4000여만원과 시상금 1900여만원을 확보했다.

이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온 군민과 전 공직자가 더욱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도시, 맑고 싱싱한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생명고를 청도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조윤행기자



성주군, 새해에도 '금연클리닉' 연중 상시 운영

금연클리닉, 금연 성공 적극 지원

성주군은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새해에도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의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및 니코틴의존도검사, 흡연자 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1 상담은 물론 금연보조제, 금연 행동 강화물품을 제공해 금연결심자가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연등록 6개월 경과자 중 소변 니코틴

검사를 통해 금연에 성공한 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금연성공물품이 제공되며 6개월 후에도 전화와 문자로 추후 관리해 평생 금연이 이뤄지도록 지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연 의지는 있으나 여건상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10인 이상의 금연 결심자가 있는 기관, 마을 등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보건소 금연클리닉(930-8179)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균 기자

'영천관광 감성 입다' 관광진흥 본격 시동



영천시, 시청 관광진흥과 앞에서 관광 슬로건 현판 제막식 행사 가져 시대 트렌드인 감성적 요소 입혀 차별화, 특색있는 관광정책 펼친다

영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관광진흥과 앞에서 관광 슬로건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관광진흥과 출입문 위에 걸린 현판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우현 탐나라공화국 대표와 함께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진행된 '이름나는 새 명소 품앗이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것으로 기존의 영천관광 정책에 시대의 트렌드인 감성적 요소를 입혀 차별화되고 색감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영천시 관광진흥과는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시의 종합적인 관광진흥정책 개발과 미래 관광산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 5월에 만들어진 신설부서로 그동안의 위명업을 거쳐 다가오는 2019년부터는 영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우선 관광진흥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 영천시 관광정책의 중장기발전방안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보현산대에 설치될 국내 최장 500m 출렁다리 사업과 보현산 천문과

학관 내 시설 및 운영 컨텐츠를 보완하고 포토존, 별자리 관측 등 특색 있는 볼거리를 마련해 우리시의 '별' 불일 있는 명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별 명소화 사업'이 시작된다.

또한 영천의 더운 날씨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컨텐츠인 이글루 체험장이 사업비 5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0년까지 舊 자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체험·전시시설, 전망대 및 편의시설을 갖춰 들어설 녹색체험터 조성사업이 금년도 시작한 실시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

여기에 보현산별빛축제를 가족단위 체험형 캠프축제로 도약시키고 지역 야영장시설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관광테마와 야영장을 연계한 '별빛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별 보는 캠핑 도시 영천'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인기시설인 5D 돔 영상관의 노후화된 투영시설을 업그레이드해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스타 영천'의 위상을 높인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마케팅 시장도 새롭게 공략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의 박람회·로드마케팅 참여, 관광가이드북·지도 제작 등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영천관광 사이버 투어 VR존 운영, SNS 활성화, 영천관광 앱 개발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개별 여행자들의 관광지 접근성을 고려해 '관광택시'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최윤행 기자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센터-‘꿈바야’, 위·수탁 협약

청도군은 지난 24일 군청 군수실에서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꿈바야'(대표 도기봉)와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도군은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운영법인을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지난 5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꿈바야'가 운영 법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협약으로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꿈바야'는 앞으로 3년간(2019-2021년) 청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및 가족복지 전문성을 적극 적용하여 청도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족 사업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윤행 기자

영천이 비상한다

21세기의 변화는 영천이 주도합니다.
항공부품사업으로 날고, 경마공원으로 뛰는 도시,
신성장 동력을 장차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합니다.

영천시

영천 미래 신성장 동력 항공부품산업

새로운 신성장동력인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영천의 제2역이 열립니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에어로 테크노밸리, 그리고 세계적 항공사인 미국 보잉 MRO 센터 건립으로 항공부품산업은 영천의 확실한 미래 에너지를 완성하여 영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영천 뉴 트레이드 마크 렛츠런파크 영천

1,474,883m²(448,000평) 거대한 넓이만큼 영천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영천 비상을 주도하는 쌍두마치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합니다. 영천렛츠런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마 테마파크로 승마 관련 시설, 시민공원 등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영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주도합니다.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장세용 구미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8 열린어린이집 지정서·현판 수여식'에 참석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다.

군위군, 깨끗한 지역만들기 최우수상에 소보면 수상

군위군은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 동안 '깨끗한 지역만들기'를 위해 노력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깨끗한 지역만들기' 종합평가는 국토대청결 활동을 비롯해 연도별 풀베기 사업, 하천 주변 정화활동, 행락철 행락지 정비, 옥외광고물 및 공중 화장실 관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읍·면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했으며 최우수상에 소보면, 우수상에 산성면, 장려상에 부계면과 우보면이 선정됐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 'OrangeCab' 시승

구미시는 지난 24일 오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OrangeCab 시승식을 관내 13개 장애인 단체장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본관 앞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별교통차량 5대를 증차해 내년부터 총 11대를 운행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이를 홍보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특별교통차량은 현재 6대 운행 중이며, 이번에 구입한 차량은 장애인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올뉴카니발 2018년슬로프타입 장애인용 차량으로 경북광역시장애인복지부(1899-7770)로 전화예약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km에 1300원(추가요금은 1km당 300원)이며 구미시 관내의 경우에는 5000원이 한도이고, 시외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시계 외 할증 20%를 적용하게 된다. 이은진 기자

의성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받다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10호 등재 전통지식, 역사, 농업문화 담겨

의성군이 한반도 최초의 화산인 금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한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로 등재하는데 성공한 가운데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형성한 유·무형의 농업자원을 보전가치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총 12개의 농업유산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은 남한에서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이 지역 환경 특성과 물 빼집

이 심한 지리적 불리여건을 극복하고 삼한시대 고대국가인 조문국 시대부터 약 2000여년 동안 600개가 넘는 못을 축조해 농업을 이어 온 선조들의 전통지식과 역사, 농업문화가 담겨있는 농업유산이다.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금성산 고도에 따라 할아버지-아비-손자못으로 이어지는 연속 관개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에 이용했다. 물이 귀한 터라 지역주민들은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리공동조직을 결성하고 못도감 제도를 운영하는 등 못과 관련한 다양한 농업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이 지역은 대부분 논 이모작의 작부체계를 따는데 6월경 의성마늘을 수확하고 나면 한 주내 일제히 한전(밭)에서 수전(논)으로 바뀌는 특이한 경관을 볼 수 있다. 단기간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만 금성산 일대 600여개의 못이 있

기에 가능하다.

경관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수백 개의 못과 논이 연결해 만들어내는 논 습지는 토종 어류와 다양한 양서류종류가 서식하고 수달, 물총새 등의 상위 포식자가 서식하는 안정된 수변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도 엿볼 수 있다. 논과 밭을 넘나드는 이모작체계는 마늘의 연작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염류집적 방지 및 병해충방지에 효과적이다. 선조들의 또 다른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수통과 못종을 활용한 관개방식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서 후대에 널리 보전하고 알릴 수 있어 자랑스롭다"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핵심으로 조문국박물관,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 등 주변의 우수한 관광자원들과 연계하고 보전에 지병 없는 생태박물관



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도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재성 기자

김천시, 건축행정종합 평가 '대상'



2018 경북 건축문화제 성공 개최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인정받아

김천시는 건축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건축행정종합' 평가에서 기관표창인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김천시는 건축허가 민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별단속, 무허가 축사 적벌화, 시민의 안전을 위한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추진해 왔다.

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의 일환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과 함께 구도심 빈집철거, 농촌주택개량, 농촌빈

집정비,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불법광고물 정비, 불량간판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에도 적극 응모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김천역 주변 간판개선사업과 경북도 공모사업인 자사로 간판개선사업, 부곡동 유해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등 앞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공공건축물 신축에 대해 건설한 공사추진 및 예산절감을 위해 계획·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을 수행 하는 등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지난달 1-3일 3일간 김천혁신도시내 한국전력 기술 사옥에서 진행된 미래의 만남·꿈(DREAM)을 주제로 한 '2018 경북도 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북도와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바 있다. 이은진 기자

문경시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식

문경시는 지난 24일 문경시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양면 금천문화센터에서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준공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67억 원(국비46.9억, 시비20.1억)이 투입돼 중심가로경관정비, 산책로조성, 금천문화센터 신축, 주차장 및 쉼터 등이 추진됐다.

특히 금천문화센터 신축으로 산양면 주민들이 문화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책로조성과 주차장 및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밀착형 생활SOC를 확보해 소재지 기능을 강화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 농업환경개선 본격 시동 걸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 선정

상주시는 농식품부 주관 2019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2019년부터 5년간 사업비(국비 100%) 7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토양·용수 등 농업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농촌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점검·관리하는 사업으로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해 환경운동 및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정부 핵심사업이다.

상주시는 지난달 초 이안면(아천1, 2리, 양범3리)이 선정했으며 도 자체심사,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전국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안면(아천1, 2리, 양범3

리)은 7개리의 시냇물과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20만평의 지평저수지를 깨끗하게 되돌리는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1980'를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중 이번 사업의 선정을 통해 매년 평균 1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관리·운영비 및 활동 이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지역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활동 이행비는 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공동공간 꽃·나무심기,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등 고령자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상주시는 이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의 농업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농촌경관을 개선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호 기자

경북도 중소기업대상, 구미시 3개사 수상

종합대상 (주)덕우전자, 여성기업 부문대상 (주)미래인더스, 우수상 대영정밀 등 중소기업 3개사 영광

지난 21일 개최된 경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구미시 중소기업 3개사로 (주)덕우전자, (주)미래인더스, 대영정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종합대상을 차지한 (주)덕우전자(대표 이준용)는 모바일, 차량 산업분야 핵심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4개 부문 종합평가를 통해 독보적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 경영 및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로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여성기업 부문대상을 수상한 (주)미래인더스(대표 황경희)는 알루미늄 압출제조 및 금형가공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해외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기업 육성, 여성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대영정밀(대표 김묘라)은 TFT LCD기구물, Back light, 단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품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으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를 실천해 다른 중소기업의 귀감이 됨에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경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경북 신용보증재단 보증 평가 시 우대, 중소기업지원 시책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쪼인다. 이은진 기자

김천 활약산 직지사

Heating

풍부한 생태자원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김천에서 힐링하세요!

힐링의 도시 김천에는 녹색환경과 공존하는 청정도시로 체류형 관광 휴양벨트, 품격있는 시민문화가 향유되어 모두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김천 부항댐

김천 수도산 자연휴양림

www.gimcheon.go.kr

Central Gimcheon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관영세 안동시장
은 26일 오전 소동
실에서 열리는 '안
동 전망대 설치 기
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
고회'에 참석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26일 오전 봉
화군청 통합방위
본부에서 개최되
는 '2018 4분기 통
합방위협의회 정
기회'에 참석한다.

청송군, 환경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청송군이 경북도에서 실시한
'2018년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배출
업소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모범 업무수행, 환경신
문고 처리 등에 대한 실적을 평
가하는 2018년 배출업소 환경관
리 및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
개선사업 평가보고회에서 청송
군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정보
관리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뒤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용구 기자

영주시, 시청·시의회 주차장 1월 2일부터 전면 유료화

영주시는 주차환경을 개선해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청 및 시의회 부
설주차장과 의회 앞 노외주차장
을 새해 1월 2일부터 전면 유료
화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면
유료화 시행은 그동안 시청 및
시의회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
방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의 무분
별한 장기 주차를 방지함으로써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민원
업무로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주차요금 유료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다. 유료화 시간을 제외한 시
간과 토·일요일, 기타 공휴일
등은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
이며 이후 매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된다. 1일 주차요금은 5000
 원이다.
전성기 기자

예천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61억 지원

설 명절 운전자금 40억 지원 내년 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예천군은 2019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61억
원을 용자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오는 1월 11일까지 지원신
청 접수를 받고, 운전자금 40억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용자 지원할 예정이다.

용자금액은 업체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사항이며, 대출금리 중 2%를 1년간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예천군 내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예천군 및
경북도 운전자금을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되지 아니하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
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업종은 11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전기
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처리업, 자동차
정비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우수기업(여
성기업, 장애인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은
최고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용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누리집 기업자
료실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용자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군 새마을경제과(054-650-6236)
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주현 기자



영주시가 민원분야 2관왕을 달성했다. 오른쪽에서 네번째 박현호 종합민원과장.

영주시, 2018년 민원행정 서비스 빛났다

경북도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상 민원분야 도내 유일 2개분야 수상

영주시는 지난 20일 경북도 주관으로 도청 안
민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년 민원행정 평가
대회에서 '인·허가대상 민원분야 우수상'과 '민
원행정평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민원행정 평가에서 장려상, 인·허
가대상 민원분야에서 도내 2위로 우수상을 수
상해 시민 섬김행정 추진의 결실을 거뒀다.

특히, 영주시는 민원행정 평가에서 △경북 북부
권 최초의 민원콜센터 운영, △시장과 함께하는
수요행복민원실 운영, △지속적인 공무원 친절역
량 강화 교육, △민원공무원 친절도 평가 실시 및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부서장
의 민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호 종합민원과장은 "도내 23개 시군 중
영주시가 유일하게 민원행정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 의지와 직원들의 노력 덕분"
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기 기자

영양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활동 앞장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

영양군은 24일 오전 11시 전종근 부군수 외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3차 안전점검
의 날 행사'를 영양전통시장 일원에서 실시했다.

겨울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실시된 이날 캠페인에는 영양군청과 영양119안전센터, 영양군
안전모니터봉사단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
으며, 이들은 이 시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사
고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의
식을 고취하고 인명피해 저감의 효과를 구현하
고자 전통시장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가두 흥
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주민 및 상인들
에게 화재사고 대비 요령이 기재된 전단지 배
부하는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적
으로 전개했다. 아울러 영양전통시장 내 안전점
검을 위해 영양119안전센터의 협조를 얻어 시
장 일대 시설물에 대하여 소방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종근 영양군부군수는 "12월은 한파와 관련
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급일 캠페인을 계기로 군민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여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최
소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안동시, 환경기초시설 확충 살기 좋은 청정도시 이끈다

올해 하수도사업 활발히 추진 강남동 등 하수관로 정비 509억 하수처리시설 확충 230억 투입

안동시는 하수처리시설 확장으로 하수도인프
라를 구축하는 등 살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하수도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먼저 생활하수나 분뇨를 우수와 분리해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하수관로 정
비사업'을 강남동, 송하동, 남선면 일원 3개 지
구에 509억원을 투입해 시행 중이다. '남선·노
하 처리분구'와 '정화처리분구'는 지난 11월 3
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수하처리분구'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수도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한(중구1 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환
경부 공모사업으로 3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중구1배수분구) 도시집수 예방사업'은 현재 실
시계획용역을 마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이
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
이다.

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총 2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동공공하수처리시
설 약취저감사업'과 '일직 송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올해 8월과 12월에 각각 준
공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 모습.

'풍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내년 6월 준
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
으로 선정된 '일직 방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상반기 사업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이다. 이 사업으로 공공수역
수질과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하수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점검
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하수도 시설 파손, 하
수도 막힘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생활 불편
과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순찰을 강
화해 42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행
복"을 위한 적극적으로 신뢰받는 하수도 행정서
비스 구현에 앞장섰다.

안동시 관계자는 "2019년에도 올해보다 더
나은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안동시, 웹툰지원사업 선정작 '호아전' 다음 연재

남선면 원림리 각시당 이야기 26일부터 다음 수요웹툰 연재

안동시는 '2018 웹툰콘텐츠제작지원사업' 선
정작인 '호아전'이 12월 26일(수)부터 다음 웹툰
을 통해 매주 수요일 연재된다고 밝혔다.

'호아전'은 안동시와 경북도 지원, 경북도문화
콘텐츠진흥원 주관의 '2018년 웹툰콘텐츠제작
지원사업' 공모 심사에서 안동과의 연계성 측면
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선정된 송경아 글, 안
희주 그림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던 각시가
벼랑길에서 마주 오던 또 다른 가마와 싸움이
불어 벼랑길에 떨어져 목숨을 잃고, 죽은 각시
의 넋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지었다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각시당 설화를 소재로 1913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시대극이다.

최퇴한 양반집 규수인 주인공 권호아와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여인천기를 집필하
기 위해 조선을 찾은 괴짜 문화인류학자 존 스
미스와의 여정을 그렸다. 가혹했던 현실 속에서
도 자신의 의지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주체적인 여성'을 표현했다.

'호아전'의 송경진, 안희주 작가는 경북문화콘
텐츠진흥원의 경북웹툰장작체험관 수료생 출신
으로, 지역형 웹툰작가 발굴을 위한 그간의 노
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
'웹툰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2013
년부터 시작
해 올해로 6
년 차에 접어
들면서 지역
의 신인작가
를 길러 안
동의 고유 자
원 속 숨어있
는 이야기를
발굴해 왔다.



특히 웹툰 제작과 연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
회마을, 제비원, 선어대 등 지역 문화자원을 소
재로 총 6개 작품을 탄생시켰다.

안동시 관계자는 "웹툰은 저비용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웹
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낸 지역의 모습을 통해
관객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
화와 드라마 등 다른 장르로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이다. 이번
웹툰이 단순 연재에 그치지 않고 파급력 있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 소재
로 제작된 웹툰 '호아전'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했다.
김용구 기자

www.bonghwa.go.kr **해북을 위한 산림휴양도시 봉화**

사계절 제철, 관광, 그리고 휴식과 여유가 있는 곳.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

정경 봉화의 밑은 자연 속에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산이 많아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빛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으러 봉화로 오세요!

봉 화 군

원추의 오늘 운세 (음력 11월 20일 임진)

- 1. 지금 생활에 변화를 주라. 3, 6, 7월생 직장 문제로 별거 아닌 별거 수가 있는 격. 나, 툄, 프 성씨는 물질적인 면만 추구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잃게 되니 어떤 것이 먼저인지 부부가 의논해 길을 모색하라.
- 1, 11, 12월생 현 생활이 힘들다고 빌린 금전을 안 갚으면 크나큰 재앙이 따른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라. 7, 7, 7, 7 성씨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감정을 억제하면 나도, 상대도 위하는 길이다.
-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원망만 들어 심신이 지친 상태다. 7, 7, 7 성씨는 비위 외로운 소나무, 들에 핀 흰 송이 국화와 같이 외로움을 하소연할 길이 없구나. 참고 인내하면 길이 열릴 듯.
- 음 깊은 곳에까지 갈들이 있으니 심신을 안정시키라. 4, 6, 7월생은 홀로 애간장 태우는 나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지. 상대방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구나. 7, 7, 7 성씨는 연인과 여행을 삼가라.
- 나, 7, 7 성씨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자. 현재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이니 말 한마디라도 위안이 될 것이다. 5, 7, 8월생 본성을 잘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노력하면 대성할 수.
- 무엇이든 내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 3, 5, 7월생 동남쪽에서 도움 줄 자 있으니 기회를 포착하라. 7, 7, 7, 7 성씨는 항상 불안한 상태.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취미 생활로 기분 전환하라.
- 3, 4, 5월생은 남들에게 성격이 온화하고 만인을 포용하는 이해력이 많다고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정작 내 부러울 성격 때문에 잃는 것이 많으니 내 위치를 지키라. 7, 7, 7 성씨는 홀로 짝사랑 않은 격.
- 나, 7, 7 성씨는 인정이 많아 쓸데없이 남을 걱정하다가 고초를 겪을 수. 감정을 앞세워 직업을 변동하려는 것은 크나큰 모험. 1, 6, 8, 11월생은 빈손으로 일찍 자수성가했지만 심신이 불안하고 편치 않은 상태.
- 9, 11, 12월생 데이트하기 좋은 날. 빨간색 옷이 잘 어울리겠다. 나, 7, 7 성씨는 신병으로 항상 심신이 고달프니 부모가 있어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할 듯. 부모 동반으로 쇼핑하라. 7, 7, 7 성씨는 황재수.
- 4, 5, 7월생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학대하다가 파멸한다. 7, 7, 7 성씨는 남의 일에 끼여들면 근심 걱정이 많을 수. 친절을 베풀다가 오해를 사니 자중하라. 우물거에서 송충 찾는 격.
- 지나친 고민은 버리고 오늘만 생각하라. 소득이 없다고 한탄할 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 10, 11월생은 이제부터 인생길이 시작이니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내디뎌야 할 때다. 나, 7, 7 성씨로 인해 속 썩는다.
- 스스로 해보겠다는 독립적인 성격은 좋으나 열정이 부족하다. 나, 7, 7 성씨는 고집부리다가 자멸하는 격이다. 마음을 바로 가지라. 내 호주머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남의 것에 손대면 자멸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편집인 편집국장 김성용 주간 김재열
 대구시 동대구로 85길 60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 비엔날레 평가 우수 등급

국내 3대 비엔날레로 인정받아 올 10만명 이상 관람객 다녀가 내년 9월 한국문화원 공동주최 '대구사진비엔날레 인 베를린'

대구사진비엔날레가 2018년 비엔날레 평가 결과, 부산·광주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 1위는 부산, 2위는 광주, 3위가 대구로 3개 도시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2016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으며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던 대구사진비엔날레는 올해 주체 기관이 민감에서 대구시로 넘어간 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해 개최됐다. 이번 비엔날레는 유료관람객 1만5천여명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다.

올해 6회를 맞은 대구사진비엔날레는 프랑스 기획자 '아미 바락'을 예술감독으로 선정했다. '프레임을 넘나들다'라는 비전을 내세워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동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외 작가들의 참가를 이끌어 내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과를 보였다. 지난 9월, 유럽사진의 달(EMoP)에 초청돼 대구사진비엔날레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9월에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의 공동주최로 '대구사진비엔날레 인 베를린'(Daegu Photo Biennale in Berlin)'을 베를린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비엔날레 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지원, 정부미술은행 작품 구



입,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비엔날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리서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포항시립예술단, 일본 조에츠 방문 축하공연

음악을 통한 양 도시 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포항시립예술단은 지난 22일 일본 조에츠 시 크리스마스콘서트에 출연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음악회를 가지며 양 도시 간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를 증진하고 포항시를 알렸다. 조에츠시는 1996년 포항시와 우호도시로 자매결연 한 후 22년 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해외도시로, 양도시의 청소년 홈스테이 및 학교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해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조에츠시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 공연에 앞서 조에츠 시청을 방문한 포항시립예술단은 조에츠시 직원들의 환대에 화답하는 답가로 다함께 부를 수 있는 크리스마스곡을 선보였으며 조에츠시 직원들의 열렬한 찬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날 무리야마 히데유키 시장과의 점접 자리에서 포항시 문화예술과 이희경 팀장은 조

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이번 공연으로 두 도시 간의 소중한 인연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에츠시 오렌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크리스마스콘서트는 조에츠시민관악단을 주축으로 하여 조에츠시립교향악단, 오유카이합창단이 출연하고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찬조출연해 합동공연과 독창 무대를 선보였다. 포항시립교향악단은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유명한 주제곡 '인생의 회전목마'와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사운드 오브 뮤직'을 새롭게 편곡하여 목관 5중주로 선보였다. 이어 조에츠시민관악단, 조에츠시립교향악단과의 합동연주곡 'A Christmas Festival'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내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띄우며 조에츠 시민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이끌어 냈다.

강동진 기자



포항시립예술단 일본 우호도시 조에츠 방문 축하공연을 벌였다.(사진은 시립교향악단 공연)

'아듀! 2018' 대구콘서트하우스 28일 '환희의 송가' 음악회 공연

베토벤의 명곡으로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공연이 대구에서 열린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오는 28일 그랜드홀에서 '환희의 송가' 송년음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연은 베토벤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주제로 한다.

이 곡의 제4악장 '환희의 송가'는 일반적인 교향곡에서 찾기 힘든 대합창단과 네 사람의 독창이 특징이다. 소프라노 조선형, 메조소프라노 손정아, 테너 김석철, 베이스 임재준이 노래한다. 경산·구미·포항시립합창단 등 200여 명에 달하는 성악가들도 대거 출연해 웅장함을 더한다. 줄리안 코바체프가 이끄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맡는다. 이형근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은 "베토벤의 대표곡으로 채워진 송년음악회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구미술관, 연말 다채로운 이벤트 풍성

거꾸로 트리부터 공연 할인이벤트까지 제공

대구미술관이 연말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연다. 대구미술관은 23일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과 연말 콘서트, 할인이벤트 등을 제공한다"고 했다. 대구미술관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꾸로 트리'를 설치했다. '거꾸로 트리'는 어머니 프로젝트인 '나현, 바벨-서로 다른 허' 내부에 설치된 역삼각 형태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외형에서 착안한 작품이다.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29일 오후 5시에는 '루이스 앤 프렌즈'를 공연한다. 김병섭, 김선희, 김휘구, 송형준, 신효림, 조은서 등의 뮤지컬 배우가 출연한다.



세계적 테너인 루이스 초이도 특별 출연해 목소리를 더한다. '울게 하소서', '나는 파도를 가르는 배', '넬라 판타지아' 등의 아리아를 노래한다. 25·29·30일과 내년 1월1일에는 선착순 100명에게 입장료 반값 할인 혜택을 준다. 스케줄러와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소개하는 대형 달력 등도 증정한다. 뉴시스

영천시립도서관,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28일까지 시립도서관 1층서 프랑스자수·스텐실 등 전시

영천시립도서관이 24-28일까지 시립도서관 1층 문화강의실1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12월까지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안 진행된 포크아트&스텐실, 프랑스자수, 손그림펜치 에테가미 등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영천시립도서관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 및 각자의 재능 기부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수강생들의 성취감 부여 및 시민과의 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동아리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기명 영천시장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앞장서는 도서관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도서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대구교육청, 국·과장 대규모 교체 인사

화재 대피훈련, 체험위주로 한다!

대구교육청, 유·초·중등학교 체험용 피난기구 설치·훈련



들도 주기적으로 화재 대피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자수 기자

미래역량교육 적극적 추진 5급 이상 대규모 인사 발표

대구교육청이 지난 21일,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5급 이상 국·과장을 대규모 교체하는 2019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교육청 국·과장 9명, 교육지원청 국·과장 10명 등 5급 이상 총 88명을 교체했다.

△3급(지방부이사관) 승진 1명 △4급(지방서기관) 승진 2명 △5급(지방사무관) 승진 18명 △전보 66명 등 총 67명을 임용했다.

이는 △미래인재육성에 주력하기 위한 인력 배치 △교육지원청의 역할 증대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역할 증대를 위해 내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대비해 업무능력과 교육본질 실현을 위한 일 중심의 인사, 행정 수요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적절한 배치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강은의 교육감은 "교육과 현자 중심의 인사, 공정하면서도 교육공동체가 상생하는 인사로 미래교육, 학교자율화 등 주요 정책을 역동적이고 충실하게 추진해 학교 현장 밀착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는 지난 24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최경수 기자

□대구교육청 2019.1.1.자

◇3급

△행정국장 강형구 △남부도서관장 조태환 △정책기획관 이경훈 △공로연수파견 동부도서관 석정숙

◇4급

△대외협력담당관 배호기 △교육안전담당관 장철수 △정책기획관 예산법무담당 이종현 △총무과장 변홍갑 △행정회계과장 배근영 △교육복지과장 문순태 △교육시설2과장 이재복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정동섭 △학생문화센터 총무부장 안국상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황운애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종섭 △(사서)서부도서관장 허경자 △(공업)교육시설1과장 김경한 △공로연수파견 서부도서관 최혜숙

◇5급

△(교육행정)대외협력담당관 공보담당 권원희 △의뢰협력담당관 류천호 △감사관 감사총괄담당 김충하 △청렴담당 김성호 △정책기획관 정책기획명가담당 금문섭 △학교예산담당 박복경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담당 성미숙 △중등교육과 중등학사담당 유상수 △총무과 총무담당 고성식 △인사담당 이원근 △행정회계과 출납담당 손미옥 △학교지원과 학생배치2담당 한성식 △재산사학담당 김재길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성귀영 △학교발상지원담당 이은숙 △학원공익법인담당 김순애 △교육시설1과 시설기획총괄담당 권오식 △중등도서관 총무과장 강현철 △서부도서관 총무과장 서정학 △남부도서관 총무과장 구정미 △2·28기념학생도서관 총무과장 황미영 △대우고 이

창원 △윤임고 이지안 △도원고 이상천 △강동고 장병원 △대진고 이상규 △시지교 김진열 △포산고 천우식 △철성고 박병훈 △경덕여고 서장섭 △농업마이스터고 마희순 △대구공고 정재광 △경북기계공고 권석근 △달서공고 김민태 △일미고 이상준 △일과학교 신재섭 △제일여고 김진우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재정평생교육과장 정이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석원 △재정평생교육과장 최성창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장 윤종식 △행정지원과장 김동환 △달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권순정 △재정평생교육과장 이성민 △중영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이인숙 △두류도서관장 장창희 △수성도서관장 김순열 △2·28기념학생도서관장 직무대리 노경자 △학교도서관지원과장 이규석 △달서도서관장 조정희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장 정이재 △유아특수교육과 유특학사담당 한성태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임승창 △총무과(파견) 구옥림 △낙동강수련원 총무부장 홍상원 △교육박물관 총무부장 박경림 △달공산수련원 총무부장 이성광 △화원고 김영순 △학남고 이주연 △상원고 이우정 △다산고 최은숙 △매천고 배미경 △소프드웨어고 박성원 △세명학교 천은정 △동부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이형주 △2·28기념학생도서관 독서문화과장 안정옥 △교육시설1과 시설1총괄담당 김경태 △교육시설지원센터 유지관리부장 박유환 △교육시설2과 시설중등2담당 백금상 △교육시설지원센터 기동보수부장 임종환 ◇정년퇴직 △학남고 오재수 △대진고 신민준 △농업마이스터고 이창열 △교육시설과 시설2중등담당 김영식 △교육시설지원센터 유지관리부장 형남철

대구교육청이 유·초·중등학교에 체험용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체육관 증축 시 지난해부터 19교에 체험용 완강기를 설치했고, 2019년에 31교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유치원 18개원에는 신·증축 시 층별로 구조대를 설치했다.

지난 19일, 삼영유치원에서 교직원과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실제상황을 가상으로 유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이재화 삼영유치원 교사는 "오늘 훈련을 계기로 실제 비상 시에 피난기구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체험을 주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철수 교육시설2과장은 "유아 및 아동의 생명보호 유지능력 강화를 위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히는 활동이 중요하다. 교직원

경북대, 정시 1687명 모집 가군 859·나군828명 선발



경북대학교가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687명을 선발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전 모집단위가 가군, 나군의 단일

군으로 모집한다.

일반학과는 가군, 나군 모두 수능(100%)으로, 예체능계열 학과는 수능성적과 실기성적으로 선발한다.

예체능계열 학과는 학과별로 반영비율이 다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수능성적의 경우, 표준점수(국어, 수학)와 변환표준점수(탐구영역)를 활용한다.

영어는 등급별로 반영하며, 한국사는 등급별로 차등해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다.

경북대 누리집(www.knu.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정시 합격자는 내년 1월 18일 오후 5시에 발표하며, 합격자등록은 1월 30일-2월 1일까지다.

단, 예체능 계열 및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1월 25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총원합격자는 2월 1일-14일까지 선발한다. 최경수 기자



대구한의대-원스름 화장품생산 라인에서 화장품제조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대구한의대, 약학대학 유치 총력

연구·산업약사 양성 약학대 추진

대구한의대학교가 약학대학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의학과 제약의 연계한 신약개발 및 생명약학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중심 약사와 의약과 화장품이 결합된 교수메디컬산업 분야를 선도할 산업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신설 약대 교육과정에 제약연구, 임상약학을 중점 구성할 것을 제안한 연구중심 약대에 부합한다.

△대학부속병원(계명대 동산의료원, 경북

대학교 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종합병원(서울삼성병원, 대구의료원, 파티마병원) △일반병원(광병원,의료법인 일민의료재단 세강병원, 경산중앙병원, 경산세명병원, 구미강동병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재)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중대형 제약회사 및 대형 약국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의 병원실습과 지역대학 및 병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약학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약학대학을 유치해 전연물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의약과 화장품이 융·복합된 코스메슈티컬 산업을 활성화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연구인력 양성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중학교 포맷으로 진로·체험 활성화 수업일수 조정 등은 논의 없을 듯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3 교실 정상화를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지난 21일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주재한 제6차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능 이후 학사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 차관은 회의에 앞서 "현재 학교별 자율적 학사운영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정시입시상당 기간이 겹쳐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견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 등이 거론됐으며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 요구를 반영하고 실무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19일 영상으로 진행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고3 수능 이후를 '자기계발 시기'로 지정해 각 학교에서 현장학습과 문화예술체험,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총복교육청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고3 자유학기제도 자기계발시기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발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 교사들은 대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 또는 수업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수능 시기는 전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단기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개인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우선적으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 체험학습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도별 교외 체험학습 지침 등을 학생 안전을 고려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경북교육청, 내년 고교 입학금 전액 면제

수업료 11년 연속 동결

경북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금을 전액 면제한다.

대상자는 자사고, 사립 특목고 등을 제외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2만2000여명)으로, 3억여 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고등학교 수업료도 2008년 이후 11년 연속 동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를 추진하며, 수업료를 동결해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아이에게 꿈을 읽어 주십시오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나영민 김천시의회 '민주평통의장상' 수상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평화통일 기반 구축



김천시의회는 나영민 의원이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통일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그는 "앞으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평화 통일 여건 조성에 앞장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의원(7·8대)은 지난해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청년회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열린 의정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2018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진 기자

남윤찬 안동시의원, 道 의정 봉사대상 수상

안동시 재정 낭비없이 꼼꼼히 챙겨



안동시의회 남윤찬(왼쪽) 의원이 정훈선 의장으로부터 '의정봉사대상'을 전달받고 있다.

남윤찬 안동시의회 의원이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김용구 기자

24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남 의원은 7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재선의 원으로서 연간 1조에 가까운 안동시 재정이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있도록 꼼꼼히 챙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8대 의회에서 6개 면에 걸친 넓은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성실성이 높이 인정됐다.

특히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고충 해결에 앞장서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온 점도 인정을 받았다.

남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발로 뛰며 시민이 행복한 안동을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은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을 드높인 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김용구 기자

안동시의회 정훈선 의장 지방의회발전 공로 대상

2018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



안동시의회 정훈선 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2018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

관하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기업, 언론 등 총 17개 분야의 전문 심사를 거쳐 올해 두드러진 활동으로 국가발전을 이끈 100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정훈선 의장은 그 동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고충 해결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제8대 전반기 의장을 맡아 타고난 리더십으로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이끄는 등 바람직한 의회상 구현과 지방의회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정 의장은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동시민들 덕분에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새해에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훈선 의장은 제7대 전·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2016년에는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용구 기자



영천시 다동이가정 사랑축제 성황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영천시지부 다자녀가정과 함께 행복 영천 만들기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영천시지부(지부장 김상희)는 지난 22일 영천교목문화센터에서 다자녀가족 및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동이 가족 사랑 축제를 개최했다.

식전행사로 캐릭터인형과 함께 사진찍기, 페이스페인팅, 가족포토존, 소망트리 및 느린 우체통 편지쓰기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5자녀 이상을 둔 화목한 4가족이 영천시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날 공연은 성남여고 영브라스 마칭 밴드를 시작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고 버블쇼, 변검술 등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재미를 선사했다. 영동고등학교 이클립스 댄스팀이 파워풀한

댄스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가족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재미있는 공연을 보게 되어 정말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나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상주 숲문학회 창립 20주년·상주문학인의 밤 행사 동시에

중국 연변작가협회 작가 지역 문인 등 100여명 참석

상주에서 활동하는 숲문학회(회장 장운기)가 지난 21일 오후 상주농협예식장에서 '숲문학' 제19집 출간과 '숲문학회' 창립 20주년, '상주문학인의 밤' 행사를 동시에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숲문학회 회원과 중국 연변작가협회 구호준, 류재순, 허순금, 양영철, 광미란 문인, 한국문인협회 박찬선 부이사장, 진용숙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장, 한국문인협회 상주지부 등 지역문학단체 문인, 숲문학회

후원회 육만수 회장, 박원규, 정하록 위원, 텔런트 김학철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숲문학회 장운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는 중국 연변작가협회 작가와 공동 발표하는 '숲문학' 제19호집 출간 등 세 가지를 함께하는 행사로 행사 하나하나에 뜻이 있고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중국 연변작가협회 최국철 주석을 대신해서 구호준 작가는 "2002년 숲문학회와 자매결연 하고, 당시 김학철 주석을 비롯한 허통서 주석, 이혜선 중국 작가협회 중앙위원 등 많은 작가들이 매년 숲문학을 방문하고 있으며 '숲문학' 제3호집부터 제19호



집에 이르기까지 매년 작품을 공동 발표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 양단체의 문학교류를 활발하게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청국장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영주시여성농업인회 사랑의 농심 나누기

(사)한국여성농업인 영주시연합회(회장 장진순)는 지난 20일 단산면소재 한여농 작업장에서 5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2018년 이웃사랑 농심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웃사랑실천 농심나누기'는 영주시여성농업인회에서 공동과제로 재배한 콩으로 농촌여성으로서 건강한 식생활유지, 전통장류 계승을 목표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다.

올해는 토속적인 발효식품인 청국장과 순

두부를 만들어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한여농 영주시연합회 회원들이 공동과제로 단산면 사천리 586-13번지(1000평)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콩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장진순 한여농 영주시연합회장은 "음·면별로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해 청국장과 순두부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장류 지역특산물 홍보활동, 여성농업인 자질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 등 한여농 영주시연합회는 다양한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삼기 기자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이제, 1국민1연금시대!

국민연금동장

경력단절자 추후납부 확대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실업/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로,

"더 가까워진 국민연금을 꼭 준비하세요!"



NPS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포함지사 054)280-0899

평생월급 국민연금 공금할때 1355

손흥민, 에버턴전 멀티골... 시즌 7-8호골 폭발

2골 1도움 '맨 오브 더 매치' 뽑혀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1위 등극 모하메드 살라, 해리 케인 등 제쳐

손흥민(토트넘)의 몰아치기가 시작됐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두 골을 넣었다.

11월 A매치 휴식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손흥민은 지난 20일 아스날과의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맛을 봤다.

이날만 두 골을 추가하며 시즌 득점 기록을 8골로 늘렸다. 리그 4·5호골이다.

첫 골은 전반 27분에 나왔다. 해리 케인과 최전방 투톱을 형성한 손흥민은 골키퍼와 수비수가 공 처리를 미루는 사이 공을 가로채 빈 골문을 향해 오른발 슈트를 날려 득점에 성공했다.

0-1로 끌려가던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한 방이었다.

손흥민은 4-2로 앞선 후반 16분 다시 한 번 득점포를 가동했다.

에릭 라멜라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트로 한 골을 보냈다.

손흥민은 팀이 6-2 리드를 잡은 후반 34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원정팬들은 변함없는 활약을 보인 손흥민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의 첫 골을 기점으로 살아난 토트넘은 에버턴을 6-2로 대파했다.

승점 42(14승4패)로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44·14승2무2패)를 2점차로 추격했다.

또한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파워랭킹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스포츠매체인 스카이스포츠가 발표한 2018-2019 EPL 파워 랭킹서 9449점을 차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9279점을 차지한 로버트 스노드그래스(웨스트햄)가, 3위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가져갔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해리 케인은 8위에 올랐다.

스카이스포츠가 선정하는 EPL 파워랭킹은 총 34개의 지표들 토대로 최근 다섯 경기 동안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에 점수를 매겨 선정한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손흥민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준 선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최근 다섯 경기에서 네 골을 터뜨리면서 필멸 날았다.

이날 열린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는 2골 1도움을 올리며 경기 최고 선수의 상징인 '맨 오브 더 매치'에도 뽑혔다. 뉴시스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이 23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에버턴의 마이클 키건과 공을 다투고 있다. 손흥민은 2골-1도움으로 활약하며 토트넘의 6-2 대승을 이끌었고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혔다

K리그1 포항, 채프만과 2년 재계약

호주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



포항스틸러스가 호주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 채프만과 2년 재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했다. 2017년 인천 유나이티드를 통해 K리그에 데뷔한 채프만은 올해 포항에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올 시즌 K리그1 33경기 4도움을 기록하며 포항의 상위 스플릿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188cm 83kg의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최후방 수비를 든든히 보호하는 수비력 뿐 아니라, 공격 차단 직후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톱패스로 도움을 올리는 등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채프만은 "포항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내년에도 포항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 호주 국가대표에도 선발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3점포 17방' KGC인삼공사, KT 완파

DB, 연장 끝에 KCC 꺾고 4연승

안양 KGC인삼공사가 쏠부상에 신음하고 있는 부산 KT에 완승을 거두고 기분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레이션 테리.

KGC인삼공사는 25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KT와의 경기에서 레이션 테리의 맹활약을 앞세워 110-83으로 대승을 거뒀다.

지난 23일 고양 오리온에 86-96으로 저 3연승 행진을 마감했던 KGC인삼공사는 이날 승리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다. 홈경기 4연승을 달린 KGC인삼공사는 14승째(12패)를 올려 창원 LG와 공동 4위가 됐다.

KGC인삼공사는 3점슛 31개를 시도해 17개를 성공했다. 올 시즌 한 경기 한 팀 최다 타이 기록이다. 54.8%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고감도 슈트 감각을 자랑했다.

레이션 테리는 3점포 5방을 터뜨리는 등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인 45득점을 올렸다. 리바운드도 9개를 견어냈다.

베테랑 양희종이 3점포 4방을 포함해 14득점을 올렸고, 저스틴 에드워즈가 14득점 8리바운드 9어시스트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 경기는 지난 11월 26일 KGC인삼공사와 KT의 트레이드 이후 첫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신인 드래프트 당일 KGC인삼공사는 한희원·김윤태를 KT에 내주고 박지훈을 영입했다. 한희원, 김윤태가 모두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박지훈은 14득점을 올리며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다.

쏠부상으로 고비를 맞고 있는 KT는 대패의 수모를 당했다. 허훈(허벅지), 김윤태(발목) 등이 부상 중인 가운데 데이빗 로건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로건의 대체 선수인 스테판 무디도 데뷔전이었던 22일 원주 DB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8주 진단을 받았다.

앞선의 쏠부상에 KT는 이날 경기 전 DB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최성모를 영입했으나 경기 수 불일치로 이날 경기에 투입하지 못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 2연패에 빠진 KT는 11패째(15승)를 당해 인천 전자랜드와 2위 자리를 나눠가지게 됐다.

양희종(26득점 9리바운드)과 마커스 랜드리(20득점)가 46점을 합작하며 분전했지만, 커다란 부상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5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한 김영환도 팀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 2순위로 KT 박준영과 KGC인삼공사 변준형도 이날 첫 맞대결을 펼쳤다. 박준영(2득점 1리바운드 1어시스트)과 변준형(1어시스트) 모두 두각을 보이지는 못했다.

1쿼터에서는 KT가 12점을 올린 양희종의 활약 덕에 28-17로 앞섰다. 하지만 KGC인삼공사는 2쿼터에서만 16점을 넣은 테리를 앞세워 49-41로 리드를 가져왔다.

3쿼터 초반 테리의 골밑슛과 자유투, 양희종의 3점포로 58-47로 점수차를 벌린 KGC인삼공사는 3쿼터 중반 에드워즈의 스틸에 이은 덩크슛, 테리의 연이은 골밑 득점으로 65-51까지 달아났다.

KGC인삼공사는 3쿼터 종료 3분여 전 에드워즈가 3점포를 넣어 한층 기세를 살렸고, 테리가 연속 4득점을 올려 76-58로 점수차를 벌렸다.

4쿼터 초반 양희종, 박지훈의 3점포와 테리의 골밑 득점으로 86-65까지 앞선 KGC인삼공사는 3쿼터 중반 테리가 3점포 두 방을 작렬, 26점차(94-68)로 리드를 잡으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원주종합체육관에서는 원주 DB가 연장 접전 끝에 전주 KCC를 84-81로 꺾었다. 71-71로 맞선 연장엔 돌입한 DB는 김민구, 정희재에 3점포를 얻어맞으며 73-79로 뒤졌다. 하지만 포스터의 골밑슛과 추가 자유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이광재가 3점포와 상대 파울로 얻은 추가 자유투를 성공해 80-81로 따라붙었다. 윤호영의 자유투로 역전한 DB는 김태홍이 포스터의 2점슛 실패 때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뒤 골밑슛을 넣어 경기 종료 18초 전 84-81로 앞섰다. KCC의 공격 기회 때 브랜든 브라운이 시도한 3점슛이 림을 벗어났고, 유성호가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DB가 승리를 가져왔다. 뉴시스

IBK기업은행, 성탄절 매치서 한국도로공사 제압

도드람 2018-2019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이 한국도로공사와의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웃었다.

IBK기업은행은 25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19 25-17 25-18) 완승을 거뒀다.

앞선 라운드에서 세트 스코어 1-3으로 탈미를 잡았던 IBK기업은행은 안방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승점 32(11승5패)로 흥국생명(승점 31·10승5패)을 끌어내리고 1위를 되찾았다.

어나이(25점)-김희진(18점)으로 이어지는 쌍포가 맹위를 떨쳤다. 특히 김희진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희진은 72.22%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자랑했다. 서브 에이스도 4개를 보였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승리였다. IBK기업은행은 세 세트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추격을 20점 아래로 막았다.

1세트 초반부터 어렵지 않게 치고 나갔다. 어나이를 앞세워 리드를 잡은 IBK기업은행은 김수지의 블로킹이 더해지면서 19-9로 앞섰다.

2세트에서도 8-8에서 김희진의 서브 때 대량 득점에 성공, 14-8로 달아났다. 김희진은 24-17에서 오픈 공격으로 세트를 정리했다.

IBK기업은행의 몰아치기는 3세트에도 계속됐다. 16-15에서 고예림과 김희진의 릴레이 득점으로 23-16을 만들며 승부를 끝냈다.

선두권 진입을 노렸던 한국도로공사는 승점 26(9승7패)으로 4위에 머물렀다. 파류(10점)와 박정아(9점)의 공격성공률이 30%대에 그치면서 맥없이 무너졌다. 뉴시스

추신수 아시아 선수 최다 홈런, 올해 MLB 화제 24위



지난 5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연장 10회말 끝내기 홈런을 때려낸 후 기뻐하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의 메이저리그(MLB) 아시아 선수 최다 홈런 신기록이 올해 메이저리그 화제의 장면 중 2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NBC 스포츠는 25일(한국시간) 올해 메이저리그 화제를 25가지 선정해 공개했다. 이 중 추신수,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바톨로 콜론, 아드리안 벨트레 등 외국 국적 선수들의 기록을 24번째로 꼽았다.

추신수는 5월 2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3-3으로 맞선 연장 10회말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홈런을 작렬했다.

이는 개인 통산 176호 홈런으로, 추신수는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일본)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메이저리거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추신수는 올해 개인 통산 홈런 수를 189개로 늘렸다. 당분간 추신수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메이저리거 최다 홈런 기록이 깨지는 힘들 전망이다. 뉴시스

전국 초·중·고 학생 참가
(우승·준우승·3위 장학금 지급)

꿈나무육성

제5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2019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5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사
주관 대구광역시일보골프클럽



참가규모 95팀(학생부 포함 384명)

2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2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경주현대호텔 대연회장 저녁 6시

-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고 및 남·여 아마추어
 - ▣ 학생부 참가비: 15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일반부 참가비: 19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52-1400-8617-53
예금주: 박경선(대구광역시일보골프클럽)
 - ▣ 접수기간: 12월 13일-2019년 2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053)257-0000
(053)253-0000
-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